



HE Jaroslav Olsa, jr. Ambassador of the Czech Republic to Korea

The Czech Republic, heart of Europe with great historical and cultural importance!

수년 전에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프라하를 배경으로 한 유명 드라마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프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게 되었다. 체코공화국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인 프라하를 간과할 수 없다. 그 도시는 역사적 중심지가 아름답게 보존된 세계적으로 빼어난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가 교차된 유럽중심지라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체코공화국은 셀 수 없이 많은 역사문화적 이점이 있는 나라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 정권이 끝나는 1990년까지 한국과 체코는 전통적으로 오랜 상호교류를 가지지 못했다. 그리하여 양국의 공식적인 수교기간은 20년 정도이다. 양국간에는 상호간에 배워야할 것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아시아경영전략정책연구원 · 다문화공동체포럼의 동북아포럼은 주한체코대사관에서 아로슬라브 올샤 주한체코대사를 만나 양국간 관계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Few years ago, lots of Koreans were impressed by 'The Lovers of Prague', the famous soap opera set in Prague. Czech Capital city became famous among Koreans. When discussing Czech Republic, one can not overlook the overwhelming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Prague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beautiful world capitals with an exquisitely preserved historical center.

Thanks to its location at the crossroads of various cultures in the heart of Europe, the Czech Republic has countless cultural and historical points of interest. Our countries do not have a long tradition of mutual contacts because of communist regime in Czechoslovakia until 1989 so its period of amity is about 20 years. In fact, we have lots of things to know about each other. We met H.E. Jaroslav Olsa, jr., Ambassador of the Czech Republic to Korea in his Embassy and heard his opinions about bilateral relations and multi-cultural society.

Q. 한국에 오신지 1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나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시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무엇보다 저는 제가 서울과는 매우 다른 대륙,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서울로 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와 인근 5개 국가에 6년간 대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파견국을 비교하기란 실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50년 전 짐바브웨가 부상하는 산업과 발달된 농산물로 잘 발전한 나라인 반면, 경제발전은 한국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년 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아시아의 경제발전소가 되었다는 점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데 특별한 문제를 발견한

Q. We know that it has been over one year since your Excellency came to Korea as an ambassador. Please give us your impression on Korea and Korean people and any specific difficulties during your stay in Korea.

- First of all I need to stress the fact, that I arrived to Seoul from a very different continent, Subsaharan Africa. As I served as ambassador to Zimbabwe and five neighbouring countries for more than six years, I dare to say,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mpare these two postings of mine. While Zimbabwe used to be a fairly developed country with emerging industry and advanced agricultural production half a century ago, its economic path has been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an Korea's. I must admit that the fact that an extremely poor



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교통체증과 종종 정도가 지나친 빨리빨리 정서가 있어 항상 지극히 유쾌한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서울이나 지방, 밤과 낮을 막론하고 매우 안전한 느낌 때문에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치안은 세계 모든 국가가 꿈꾸는 것입니다.

Q. 한국인들이 체코슬로바키아는 잘 알고 있지만 체코라는 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만 알고 있을 뿐 다소 낯선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독자들과 한국사회에 체코공화국의 역사 및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체코 공화국은 국민이 천만 명 조금 넘는 중간 규모의 유럽연합회원국입니다. 국가는 흔히 말하듯 유럽의 지리적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위치 덕분에 그러한 역사적인 체코 정부의 땅은 이미 19세기말 유럽의 산업발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and underdeveloped country like the Republic of Korea fifty years ago, has become an economic powerhouse of Asia, is something the Koreans should be proud of.

I have not found any significant problem to adapt to life in Seoul, yet it is not for all the time the most pleasant place with its never-ending traffic congestion and a pali pali feeling, which is often overwhelming. But this can easily be overcome by an extreme feeling of safety, day or night, anywhere in Seoul or in the countryside. This is something which most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uld only dream of.

Q. We know well about the name of former Czechoslovakia and its division into the Czech Republic and the Slovak Republic, but not much about your country yet. Please, introduce the Czech Republic to our readers and other Koreans.

-The Czech Republic is a medium-size European Union member country of a bit more than ten million inhabitants. It lies in the geographical heart of Europe, as we often say. Thanks to its location next to Germany,

당시 체코는 거대한 다인종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의 일부였는데, 그 영토의 대부분이 폴란드 남부부터 보스니아까지 중앙, 동남부 유럽에 걸쳐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1918년 독립한 후 1930년대 중반 체코의 경제는 상승했습니다. 그때 체코슬로바키아민주주의공화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1939년 체코가 나치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체코의 전성기는 막을 내렸고, 이 시련은 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그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 공산주의 쿠데타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에 종속되었습니다. 이는 체코경제, 문화 그리고 전 사회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1989년 11월 대학생집단에서 시작된 이른바 '벨벳혁명' 이후 완전한 자주권을 다시 얻는 데는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무혈 대중민주화 이후 1989년 12월 출범한 체코의 최초 민주정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민주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0년 이래 체코의 새로운 민주정부는 정치적 부담과 수십 년간의 사회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전해 왔습니다. 체코 지도자는 성공적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과거에 일어난 많은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1993년 지금은 최고의 우방국인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의 2개 독립국가로 나라를 분할했습니다.

Q. 한 나라의 GDP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조업 분야는 그 근간이 되는 중요사업입니다. 체코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산업분야나 국가산업정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작은 영토 때문에 체코공화국은 국민 1인당 GDP가 한국과 같은 외자

Poland, Austria and Slovakia, these historical Lands of the Czech Crown became an industrial workshop of Europe already in the late 19th century. At that time we were a part of a large multiethnic Austro-Hungarian monarchy, which covered majority of territory of Central and South Eastern Europe from South Poland to Bosnia. After Czechoslovakia gained its independence in 1918, our economy went forward and in the mid-1930s the then democratic Czechoslovakia was probably the 13th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Our successful years ended unfortunately in 1939 when Czechoslovakia was occupied by Nazi Germany and this ordeal lasted for six years.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I, due to the communist coup in 1948, Czechoslovakia became a part of the Soviet-bloc. It had a very adverse effect on our economy, culture and the whole society. It took almost four decades till Czechoslovakia regained the full sovereignty after so-called 'Velvet Revolution', which was started by university students in November 1989. After bloodless mass demonstrations our first democratic government has been sworn in December 1989,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the new democratic era of my country.

Since 1990 our new democratic governments have been working hard to overcome the burden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ownturn caused by decades of a socialist mismanagement. Our leaders have successfully revamped the economy, tried to heal many social wounds caused by the past and peacefully divided the country in 1993 into two independent states, the Czech Republic and the Slovak Republic, which are nowadays the best allies and friends.

Q.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decisive component to GDP. Please introduce main industry or government policy in industry for economic development of Czech Republic.



무역에 의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시장에서 체코회사가 성공하는 것은 체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체코의 성공일화는 유명 브랜드 스코다, 타트라 같은 자동차제조업부터 아음속 제트기 트레이너 L-139와 L-410 같은 여객항공기 등의 항공기 산업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영역은 제약을 포함한 화학 산업입니다. 체코공화국은 유럽에서 정보기술서비스에서도 해외업무 위탁과 아웃소싱에 있어 높은 지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IT는 체코 경제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중요한 사항으로, 체코 음식산업은 수출에서 주요한 몫을 하는 산업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필스너 우르켈이나 버드와이저 부르바르 같은 맥주와 그 요소인 맥아와 보리 역시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체코 공화국은 높은 GDP성장과 실업률 하락을 달성했습니다. 대량의 외국투자가

- With its relatively small population and size, the Czech Republic is very much foreign trade oriented country with a GDP per capita practically the same as Korea's. Therefore successes of Czech companies on foreign markets are for us of utmost importance. The success story is based on our diverse economy, which spans from car manufacturing, with the most famous brands like Skoda and Tatra, to aircraft industry with its subsonic jet trainers L-139 and passenger air crafts such as L-410.

Other important sector is chemical industry, including pharmaceuticals. The Czech Republic has emerged as Europe's top location for offshoring and outsourcing of information technologies services, as well. Recently IT comprise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Czech economy. Last but not least the Czech food industry is also among the leading industrial branches with a significant share on exports. Beer like Pilsner Urquell or Budvar and its ingredients as malt and barely, ranks among the most traditional export commoditie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Czech Republic has

유입되어 체코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유로화와 미국달러에 대한 강세에도 2005년 이후 무역균형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Q. 2007년에 10억 유로 상당(30만 개 자동차 생산설비)의 한국 현대자동차 공장이 체코에 건설되었습니다. 이에 양국간 경제교류관계가 증진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외국 기업과 장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체코가 가진 투자상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현대기업의 투자도 중요할 뿐 아니라 노소비체에 있는 현대자동차 조립·제조 공장 역시 최근 몇 년간 매우 큰 체코내 외국투자입니다. 그러나 현대 역시 중요한 투자일뿐 아니라 유럽대륙 전체에서도 매우 큰 사례입니다. 연간 유럽연합 시장에 계획된 30만 자동차 설비를 갖춘 체코현대모터제조업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통적으로 스코다 승용차와 타트라와 리아즈 트럭과 같은 체코산 브랜드의 강력한 자동차 생산력을 가진 체코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회사입니다.

유럽출신 외국기업뿐 아니라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 일본, 멕시코, 미국 국적의 많은 유럽회사가 체코를 새로운 회사를 건설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로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직물에서부터 아음속 항공기, 제화에서 정보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해 온 체코는 산업적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체코는 교육수준이 높은 것만큼이나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이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대규모 터빈 생산을 주도하는 전세계적 체코회사 스코다 전력에 중요한 지점 하나를 영입했습니다. 이 회사가 전세계적인 기업인지라 그 액수는 거의 9억 달러에 달합니다.

experienced high GDP growth and a drop in unemployment. The massiv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ompetitive strength of Czech businesses. Since 2005 the balance of trade is recording a surplus in spite of strong appreciation of the Czech currency against Euro and US dollar.

Q. In 2007, our automobile company, Hyundai Co., Ltd. constructed the big auto factory equivalent to one billion Euros (300 thousands car production capacity) in Czech. It has been expected that the economic exchang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ould be increased. What is the merit of your country to be invested by the foreign companies and the future prospect to promote economic relations?

- Not only Hyundai's investment is important for my country, as its assembly and manufacturing plant in No?ovice is the biggest foreign investment in last few years in the Czech Republic, but it is an important investment for Hyundai, as well, as it is its biggest operation on the whole European continent. With a planned capacity of 300,000 cars a year aimed on the whole European Union market, Hyundai Motor Manufacturing Czech is undoubtedly an important company for our economy, which traditionally has a strong car production capacity of our native brands such as Skoda passenger cars and Tatra and Liaz trucks.

There is a lot of reasons why many foreign companies not only from Europe, but from many European countries as well as Japan, Mexico, United States, to name only a few countries, selected the Czech Republic as an ideal location for their new companies. It is an industrial potential of the country, which traditionally produces everything from textiles to subsonic aircrafts, from shoes to information technologies. We have a very high level of education as well as a highly qualified labour



그러나 한국과 체코가 일방향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체코 제조상품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전력기계설비에 쓰이는 체코산 크랭크 축과 해상선박을 비롯해 한국 식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체코산 보헤미아 크리스탈 같은 실용적 수입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5년간 대한민국은 2008년 15조 달러에 이르는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어 유럽 외 국가 중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번째로 큰 체코의 무역파트너입니다.

Q. 1990년 한국과 체코가 공식 수교를 맺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양국간 관계발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80년대 후반 이전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 정권 동안 두 나라간 교류가 없었던 반면 지난 20년간 모든 정치적 지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교류가 있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국회 주요 의장 및 부의장, 국무총리와 부총리, 기업인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의 동향만 본다면 양국간 정부 고위층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체코공화국을 방문한 반면, 바츨라프 클라우

force. Most recently Doosan Heavy Industries acquired one of important Czech companies, Skoda Power, the leading worldwide producer of big size turbines for atomic power plants. As this was a really world-wide enterprise, the price reached almost 900 million US dollars.

But it is not one way trade between our countries, a lot of Czech manufacturing goods also got to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practical imports, such as Czech made crankshafts which are used in power machinery equipment and sea born vessels, to beautiful Czech-made Bohemia crystal which could be found in many Korean households. Thus during the last five years,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the fourth biggest trade partner of the Czech Republic outside Europe after China, United States and Japan with a trade volume which exceeded one and half billion US dollars in 2008.

Q. Even though it has been not long history sinc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on ambassadorial level in 1990, they have developed steadily their relations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etc. How do you evaluate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 While there were practically no contacts between our

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유럽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한국-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이끌기 위해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1990년 3월 양국간 공식적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전 체코와 한국관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로 지난 40년간 1989년까지 지속된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주의 통치기간 중 공식적인 관계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체코의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발전을 뒤따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 체코 역시 프라하의 찰스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가 설립된 지 60주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지난 외교관계에 있어 20년이라는 기간은 무색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와 한국 간 그보다 더 앞선 교류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공식적인 접촉은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919년 초의 일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체코슬로바키아 군단과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시베리아의 볼셰비키 세력과 싸우며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 주둔한 강력한 6만 대군이었습니다. 두 진영 간 많은 소통이 있었으며 여러 한국 독립운동 단체를 위해 한국독립군에 군사를 조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체코의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Q. 한국이 좀 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노력이나 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 이 역시 20년 전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한 이래 체코 전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거의 반세기가량 외국 세계와 제한된 교류를 해오던

countries during the communist regime in Czechoslovakia until late 1980s, the last two decades has seen many changes on all political levels. The long list of exchanges could be traced in last years. Among them, there are speakers and vice speakers of parliaments, ministers and their vice ministers, as well as businessmen. If we look on last year only, two high-level visits took place between our countries: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Mr. Han Seung-soo visited the Czech Republic in April, while our President, Mr. Vaclav Klaus, in a role of the head of European Union during the Czech Presidency of EU, was in Seoul to lead European Union - Republic of Korea summit in May.

But speaking about the last two decades only is not exactly true, as there were Czech-Korean relation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countries in March 1990. Republic of Korea was indeed out of limits for any official contacts during the four decades of the communist rule in then Czechoslovakia, which lasted until 1989, but Czech experts very much followed the development on Korean peninsula for years. Thus 2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could easily be overshadowed by the fact, that in 2010 we will also celebrat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tudies at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But there were even earlier exchanges between the Czechs and Koreans. The very first official contacts could be traced as far as 90 years ago. It was as early as in 1919, when the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in Shanghai started their cooperation with the Czechoslovak Legion, a powerful 60,000-strong army, which was then stationed in and around Vladivostok fighting the Bolshevik forces in Siberia. There was a lot of communication between both sides and there took place Czech support for various Korean independence groups, including the arms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온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과 타문화 교류 및 소통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가능성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직 제한된 수의 체코인들만이 외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고, 국내외 여행을 허용하지 않던 초기 체코의 경제력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 또는 장기간 거주자를 수용하기에 다소 침체되어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체코는 두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체코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외국지역을 방랑하던 유목민 기질이 있어 사회주의 몰락 이후 체코 인구의 대다수가 여행비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수도 프라하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을 체코 공화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성장하는 체코공화국의 경제적 잠재력으로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deliveries to Korean independence armies.

Q. What kind of efforts or preparation will be necessary for better and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What do you think about thoughts or consciousness of Koreans on multi-culture, comparing Czechs?

- It wa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all citizens of my country after the fall of the communism two decades ago. After having lived for almost half a century in a closed society with very limited contacts with outer world,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o open as many possibilities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s as possible with other countries and cultures. There were many disadvantages at the beginning, only a limited number of Czechs could communicate in foreign languages, Czech economic power was low at the beginning which did not allow travelling abroad and our country was then a bit underdeveloped to cater a lot of

많이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유학생 교류인데 이는 젊은이들에게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교류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외국에서 발견한 최상의 것들을 조국에 도입할 기회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류가 이미 체코와 한국 양국 간에 있어왔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최근 체코공화국을 찾은 한국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최근 인천-프라하간 직항경로가 생긴 덕분입니다. 매년 체코를 찾는 7~8만 명의 한국인들을 보며 저 역시 한국을 보러 오는 체코인들의 수가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깊고 넓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체코어 학과는 2008년 20주년을 맞은 반면, 체코의 한국어과는 2010년으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체코인 한국어 전공생이 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는 그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다른 문화에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힘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국의 평화봉사단을 창출하는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foreigners as tourists or longer term residents at first.

We had a good luck in two factors, first the Czechs are traditionally avid travelers, and thus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communism a significant part of our population started "exploring" Europe and outside world, without being stopped by their shoe string budgets. Secondly, beauty and charm of our capital Prague lured a significant number of foreigners to visit and live in the Czech Republic. With increasing economic potential of the Czech Republic, also the number of people 'exploring' the world has been increasing.

The second important factor represent student exchanges, which give young people a chance to test and enjoy living in different cultures and societies. The higher the number of such educational exchange is, the bigger the chance that students will bring the best they discovered in abroad back to their home country. I am really pleased, that such exchanges already exist between our countries. There is a steady increase of Korean tourists visiting the Czech Republic in last years, also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a direct air link between Incheon and Prague. With some 70-80 thousand Koreans visiting my country every year, I can only hope that also the number of Czechs coming to see Korea, will increase.

There are intensive and widespread contacts also in an educational field, Czech Korean studies will celebrate its 60th anniversary in 2010, while Czech-language studies in Korea celebrated its two decades of existence in 2008. In any given moment there are a few Czech Koreanists studying in various Korean universities and vice versa. And these exchanges are not only bound to these specific fields.

And there is one more important thing. One of the great ways how to expose the young generation to other cultures is volunteer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becoming a global power, the projects of creating a Korean version of Peace Corps supported intensively by President Lee Myung-bak, is one of the things of high importance for creating a truly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